

함께 함께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03

2018.12.9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은 신 가운데 신이
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
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
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0:17~18

오늘의 주요기사

2면	특별 기고
3면	2018 설문조사 특집
4면	성서 칼럼
5면	사역 보고
6~9면	창립30주년 기념 지상토론
10면	사역 소식
11면	공동체 소식
12면	아기나들이

교회일정

12/9(주일)	정기당회
12/11(화)	늘푸른대학 중강
12/23(주일)	성탄가족예배
12/25(화)	성탄예배 / 성탄절유아세례 / 성탄찬양예배
12/31(월)	송구영신예배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은사를 만드는 기적, 사역박람회

2018년 사역박람회가 11월 18일과 25일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작년에 이어, 참여를 원하는 사역팀을 중심으로 박람회가 진행되어 집중도를 높였다. 은사사역팀에서는 각 사역팀의 홍보를 위한 전시자료 제작을 지원해서 참여한 사역팀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번 사역박람회를 통해서 163명이 사역 신청을 했으며, 그중 샬롬찬양대에 34명, 국내선교분과에 22명이 지원하여 눈길을 끌었다. > 관련기사 3면 **함즐함울**

교회의 10년 청사진 선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향한 첫걸음

11월 25일 김화수 담임목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교회 10년의 청사진을 선포했다. 이 청사진은 10년간 목회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2018년 11월 부임 직전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비전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미션, 그리고 “1. 성경적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2.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3. 일상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4.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갑니다, 5.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살아갑니다, 6.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며 살아갑니다, 7.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라는 7대 실천 미션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청사진은 이후 일년간 교회 형편과 상황을 살피고, 교우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준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청사진의 중심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삼각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삼각형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그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가정은 신앙의 주체”이며, “교회”는 “유·유·청·청 Revival(리바이벌)”의 개념을 중심으로 목회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전임 담당교역자를 청빙하여 책임지고 사역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삼각형은 교회 공동체가 소망하고 표현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을 의미하며, “뷰티풀 페어런팅(Beautiful Parenting)- 아름

다운 자녀양육”, “큐티-생활화”, “소그룹-활성화”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2019년 교회 안에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Beautiful Parenting Center)”가 설립되어 “부모학교, 부모예배학교, 마더와이즈(Mother Wise), 파더와이즈(Father Wise), 결혼예비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큐티의 생활화”도 지속적이며 제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주간의 정식 훈련과정도 개설된다. 이와 함께 겨자씨 모임을 포함한 소그룹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이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방안들이 확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협조와 관심을 강조했다. > 특별기고 2면 **함즐함울**

담임목사 특별 기고 | 교회의 미래를 밝힌다

주님의교회 사역 청사진(2018~2027)

새로운 사역 청사진의 탄생 과정

주님의교회 부임 직전인 작년 11월 25일 저는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7대 실천 미션에 관해 설명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일 년간 교회 형편과 상황을 살핀 후, 7대 실천 미션을 구체화한 사역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체 교우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부임 후 단시간에 교회 전체의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고 결정하기보다, 일 년 정도 교우들로부터 교회 사정도 충분히 듣고, 직접 살펴본 후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이 다이어그램이 그렇게 준비한 주님의교회 사역 청사진입니다.

중심 원리

주일 설교와 여러 경로를 통해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다이어그램 왼편과 오른편 삼각형의 중심에는 공히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과 그 모든 표현은 허망하고 허탄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삼각형(붉은색)

다이어그램 오른편 삼각형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가정, 교회, 세상”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축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 순환하는 관계입니다. 다이어그램 오른편 삼각형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그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삼각형의 맨 위쪽에는 “가정”이 자리하고 있고, 이것을 “신앙의 주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신앙의 주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자



녀들을 교회에 맡겨두면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우리도 교회에 출석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가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가족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또 예배공동체로서 함께 하며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일상 대부분을 함께 하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서고, 우리 자녀의 삶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삼각형의 왼쪽 아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은 “유·유·청·청 Revival(리바이벌)”입니다. 이때 첫 번째 “유”는 유치부 이하의 미취학(7세 이하) 연령대에 속한 모든 부서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서를 통칭하여 “유아 숲”이라 칭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유”는 유소년을 말하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에 해당하는 부서들입니다. 이를 “아동 숲”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청”은 청소년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비전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청소년 숲”이라 이름합니다. 두 번째의 “청”은 청년부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Revival(리바이벌)”이란 “회복과 부흥”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말인데,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한국교회의 미래

인 “유·유·청·청”이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유·유·청·청”이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학교 편제와 달라지는 점은 미취학 연령(유아 숲)과 청소년에 6년 동안 사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전임 담당교역자를 청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목회원을 총괄하는 6년 임기의 전임 담당교역자는 있었지만 미취학 연령(유아 숲)과 청소년을 총괄하는 전임 담당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목회원 총괄 교역자가 초등학생 연령(아동 숲)을 담당하고 미취학 연령(유아 숲)과 청소년에 6년 임기의 전임 담당교역자를 세워서 그 부서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부터는 “유·유·청·청” 각각 모두 전임 담당교역자가 책임지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삼각형의 오른쪽 아래에는 가정, 교회와 연결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경계 지워진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의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의 삶의 현장으로 바라보고,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원칙을 분명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른편 삼각형의 마지막 꼭짓점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 삼각형(푸른색)

왼쪽 삼각형(푸른색)은 오른편 삼각형(붉은색)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고 표현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입

니다. 맨 위쪽에는 “뷰티풀 페어런팅 (Beautiful Parenting) – 아름다운 자녀 양육”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 교회에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돕고 지도할 수 있는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Beautiful Parenting Center)”가 세워집니다. 이 센터에서는 “부모학교, 부모예배학교, 마더와이즈(Mother Wise), 파더와이즈(Father Wise), 결혼예비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의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른편 삼각형의 왼편 아래 모서리는 “큐티-생활화”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큐티는 낯선 일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가 가정의 신앙의 주체가 되는데 기초를 닦고자 전교인이 힘을 합쳐 지속해서 “큐티의 생활화”를 연습했습니다. 이러한 “큐티의 생활화”는 우리 주님의교회의 기초 사역 중 하나로 지속해서 유지될 것이며, 내년부터는 5주간의 정식 훈련 과정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삼각형의 맞은편 꼭짓점에는 “소그룹-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주님의교회는 겨자씨 모임을 포함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며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른편 삼각형(붉은색)에 표현된 우리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왼편 삼각형(푸른색)의 실천방안들이 확고하게 추진되고 정착되어야 하기에 앞으로 교회는 이 3대 사역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래 직사각형

이 삼각형들의 아래쪽에는 7대 실천 미션을 기록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삼각형들이 바로 이 7대 실천 미션을 구체화한 목표와 실천 방안입니다. 우리의 이 계획과 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7대 실천미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김화수

창립 30주년 기념 |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신앙생활과 사역의 수에 대하여

현재 주님의교회에는 약 120개의 사역부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사역부서의 수에 비하여 사역에 참여하는 교인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서 몇 개의 사역부서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응답자 2,045명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교인이 사역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 30%의 응답자가 1개, 18%의 응답자가 2~3개, 3%의 응답자가 4개 이상의 사역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약 20%에 해당하는 교인이 여러 사역부서에서 중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심층분석에서는 여러 사역부서에서 활동하는 교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를 살펴보면, 낮은 연령대(39세 이하)의 교인은 63%로, 높은 연령대(40세 이상) 44%의 불참율보다 높았습니다. 신앙생활 기간이 짧을수록(10년 미만 59%, 10년 이상 46%) 불참율이 높았고, 십일조 생활을 하지 않는 교인의 불참율이 58%로 십일조 생활을 하는 교인 34%보다 높았습니다. 신앙생활, 은혜체험, 성경의 생활화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인의 불참율은 약 40%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인은 약 60%에 달했습니다. 중직자의 불참율은 18%인 반면에, 일반 성도의 불참율은 54%로 높았습니다. 결혼 여부 및 거주지와 교회의 거리 등은 사역 불참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생활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참여도는 신앙의 밀도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사역부서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응답자에 대해 살펴보았습

니다. 2~3개와 4개 이상의 사역부서에서 활동하는 응답자의 신앙생활의 특성은 비슷하였습니다. 높은 연령대의 교인, 오랜 신앙생활을 한 교인, 결혼을 한 교인, 십일조 생활을 하는 교인,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인, 은혜를 체험한 교인, 성경을 생활의 지침으로 여기는 교인이 그렇지 않은 교인보다 2배 이상의 참여율로 2~3개의 사역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개 이상의 사역부서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응답자 숫자는 적지만 같은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사역부서의 참여 수가 많아질수록 참여자의 숫자는 적어지지만 참여의 비율은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인일수록 신앙생활과 사역부서에서의 활동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의 사역부서에만 참여하는 응답자에게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문항에 있어서 참석률의 차이가 현저하게 적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연령대, 성별, 직분, 신앙생활 기간, 결혼 여부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1개의 사역부서에서 활동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사역부서에 참여하여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교회의 사역부서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소수의 교인에게 여러 사역활동이 중복적으로 집중되는 것보다 많은 교인이 적은 수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두 번째 심층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사역방향을 정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함줄함울

사역보고 | 은사사역팀

2018 사역박람회를 마치고

지난달 18일과 25일, 올해 사역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역박람회에서는 단체톡방을 이용해 자료를 보내주시면 프린트하고 문구를 만들어 드려서 꾸미기만 하도록 하였더니 수월하게 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곳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고 소통하니 지난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 시끄럽다고 나간분도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으셨죠.) 홍보영상이 나가지 못해 아쉬움은 있었지만 목사님의 계속된 광고로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를 신청하신 부서만 사역박람회장을 열어 함께 활동역자들을 영입하려는 경쟁력이 치열하였습니다. 팀원의 필요가 절실한 부서일수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간절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오는 성도들만 기다릴 수 없다며 부서 홍보물을 가지고 직접 설명하며 신청을 받아내는 우스개 소리로 미인계(?)를 써서 다니며 설명하니 다 넘어 온다고 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올리는 부서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팀원들이기에 더 소중하고 생각

보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3부 찬양팀은 적극적인 홍보로 작년에 24명 보다 많은 34명의 신규 멤버를 얻었습니다. 죽배달팀은 인원이 하나도 없다고 걱정을 하시며 최선을 다해 여기저기 다니며 설명을 하시더니 7명의 신청을 받아 수확이 좋았다고 하시니 덩달아 기쁩습니다. 커피봉사는 꼭 필요함에도 한명도 지원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수고가 있기에 저희가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말이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성도님께 “원하시는 사역 있으신가요?”했을 때, “아니 그냥~, 다음에,” 하며 머뭇거리시기에 “무언가 하시고 싶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하고 물으니 그제야 “사실은 상담사역을 하고 싶은데”하셔서 바로 “전화상담”으로 연결을 해드리니 설명을 듣고 신청을 하고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음 사역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평상시에 각 부서의 개성을 살린 홍보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관을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숙정 권사 / 은사사역팀

날짜	위원회	부서	등록인원
3번째 주일 (11/18)	청소년 분과 위원회	교육지원2부, 팝콘트리중등부, 비전트리 고등부	8명
	어린이 분과 위원회	하임, 하늘씨앗, 싹트네, 담쟁이, 포도나무, 햇살뜨락, 이름드리, 아가정원, 어와나, 교육지원1부	5명
	젊은이 분과 위원회	행정부, 중보지원부, 사역부	1명
	예배 분과	중보기도부	6명
		새벽기도부	
	봉사 분과	주차안내부	2명
		주방부	3명
	국내선교 분과	전화상담부	4명
3주 (11/18) ~ 4주 (11/25)	전문선교 분과	비전 워십팀	4명
		성극부	2명
	음악 분과	샬롬(3부) 찬양대	34명
4번째 주일 (11/25)		호산나(1부) 찬양대	7명
	청소년사역원	정신학원선교부(기도, 사랑어머니)	9명
	섬김과나눔	독거어르신 생활지원팀(죽배달팀)	7명
	장애인복지 분과	장애인사역부	4명
		사랑나무부	2명
	봉사 분과	커피봉사부	
		도서실부	2명
	장례위원회	장례위원회	7명
	EM 분과 위원회	영어예배부, 어린이영어예배	2명
		호산나무용부	2명
	전문선교 분과	사진부	6명
		미용부	3명
	해외선교 분과 위원회	해외선교지원, 선교기도, 비전트립지원동남아시아, 중아아시아, 미주, 유럽,아프리카팀, 주한외국인선교부	12명
	통일선교 분과 위원회	통일선교지원,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대외활동지원	9명
	국내선교 분과 위원회	군경선교, 서부선교, 동부선교, 기관선교, 의료선교, 주한외국인선교, 복지부, 전화상담부, 전도부	22명
총 신청자 수			163명

성서칼럼 돌부리

부자 청년 2(마가복음 10:17-22)

> 402호에서 이어짐

이런 밤들이, 이런 아침들이 그를 길 가시는 예수께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는 잠을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예수께 달려와 다짜고짜 묻는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어지는 예수의 대답은 바로 이 불안한 양심을 향한다. 그리스어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가라, 팔라, 주라, 따르라”라는 4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양심의 습격에서 해방되어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요소를 말씀해 주신다. (우리말 성경에는 “와서”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동사가 아니다. 그리스어의 부사를 번역한 말이기 때문이다. 즉, “와서 따르라”는 말은, 두 동작으로 “오라, 그리고 따르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만 한 동작으로 “따르라”라는 동사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와서-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그 길에 이르도록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가서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은 부자 청년이 <더> 구제를 열심히 하고 이전보다 <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심화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나 가진 걸 다 팔아 나눠주라는 예수의 대답은 지금 하던 무언가를 <더> 하라는, 단순히 구제와 선행의 양을 <더> 늘리라는 주마가편의 말씀이 아니었다. 예수의 답변은 부자 청년의 그간 삶을 연장시키지 않는다.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된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역시 부는 매우 사회적인 맥락 속에 형성되고 축적되었다. 로마제국은 단기간 집중적이고 파괴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강

력한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모든 제국과 강대국이 그러하듯, 군사력만으로 전 지중해 세계를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었다. 로마의 광대한 제국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엮인 신용망이었다. 식민지에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적인 민중은 자기 땅을 잃고 부채를 진 채 소작인이나 일용직 노동자(“품꾼”)로 전락한다. 이러한 약탈적 부채 연대의 구축은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의 빈곤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치명적이

영생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 조건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요구하신 건 삶의 자리, 세상을 해석하는 시각의 자리를 송두리째 옮기는 일이었다. 선을 행하는 ‘나’라는 주체와 빈곤에 시달리는 ‘그들’이라는 객체로 분열된 주객 분리의 세계상을 하나로 통합하라는 요구였다. 높이 쌓아 올린 자기 재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이비-축복의 세계를 다 팔아 버리고, 극빈한 이들과 하나 되어 함께 울고 웃으며 배고픈 예수의 바닥 자리로 삶의 근거를 옮기라는 초청이었다. 오직 그 자리에서, 그 짓눌린 삶의 자리가 열

**때론 내가 내 신앙의 근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다 내버린 후에야,
길을 가시는 예수를 따를 수 있다.**

고 보편적인 가난(원어적으로는 “극빈”)에서 비롯된 영양결핍은 만성적인 질병과 귀신들림으로 이어졌다. 복음서에 수없이 등장하는 가난한(“극빈한”) 사람들, 빛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귀신들린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 죄인들은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신명기적 축복”(신명기 28장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율법의 순종은 국가와 개인 차원의 부와 번영으로 이어진다)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맥락을 가진다. 예루살렘의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로마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고 보전된다. 로마제국의 부는 로마의 평화를 따라 흐른다. 부자 청년이 경험한 양심의 습격은 이러한 부의 사회성을 어렵게 인식한 무의식의 반동이었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의 불안한 양심을 위로하고 안정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양심의 소리를 증폭시켜 부자 청년이 시달리던 불안이 의미하는 바를 확연하게 보이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은 단순히 구제와 선행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거나, 모든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만

어주는 고통의 눈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부자 청년이 염원하는 진정한 “오는 세상에 속한 생명”(마가복음 10:30), 귀신들리고 굶주린 세계 한복판에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희미한 온기를 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이 자신과 ‘그들’ 사이에, 그의 문밖 길가에 널려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부요한 자기 사이에 문짝과 담장을 세워 두는 한,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과 자신에게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한, 부자 청년은 밤을 틔타 습격하는 그의 양심을 벗어날 수 없다. 거지는 항상 부자의 문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인해, 그 재산이 열어주는 시야에 갇혀 신명기적 축복과 저주로 밖엔 세상을 읽지 못하던 부자 청년의 어두운 눈을 밝히기 위한 예수의 처방이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물론 이 모든 일에 강요는 없다. 협박도 없다. 다만 그 제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답답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대답하실 뿐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포기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는

것을 물리적 경제행위만으로 환원할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 내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까지 포기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것이 재산이든, 지위든, 어떤 형태의 성공이나 성취든 다 비워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때론 내가 내 신앙의 근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다 내버린 후에, 길을 가시는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오직 그 길 위에서, 예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 유용하고 힘 있는 무언가가 되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소유한 무언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우리 자신의 결심을 대견해 하기도 한다. 참 알겠게도, 예수의 대답은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예수의 어조는 한치의 모호함도 없이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교인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평신도, 직분자, 사역자, 목회자 나누어 각각 다른 책무를 주시며 부르신 적도 없다. 오직 예수께서는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갈 제자를 부르신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 언제나 동일하게, 분명한 어조의 부르심이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서 있다. 열기에 들뜬 순간의 기분으로 결론 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생을 걸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든 응답해 나가게 된다.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영영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돌아갔다 다시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다만 예수께서는 묵묵히 그 길 위에 계신다.(끝)

손경민 전도사

사역 보고 | 의료선교부

아시아권 의료선교 방향 정립 세미나 후기

11월 11일에 의료선교부에서 아시아권 의료선교 방향 정립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때는 주님의 교회 의료선교부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캄보디아에 선교병원을 세울 계획까지도 세우고, 비전트립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가하여 수술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열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최근엔 매년 3월 비전트립 참가자를 모집할 때면 올해는 자원자가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 40%가 의료선교사였음을 감안하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사역팀에 의료팀이 꼭 포함되는 것을 보면, 의료는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어서 개별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해외 병원급 진료 사역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치과 의사 5명이 베트남 롱안 세계로 병원에서 수술과 치과진료, 물리치료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베트남 비전트립 기간에 롱안 세계로병원에서 현지 의료인과의 교류 및 고엽제 피해 장애 아동을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12월에는 외과, 비뇨기과, 치과 의사가 베트남 나짱 간호아 병원에서 수술과 치과 진료를 할 예정

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해외 병원급 진료 사역과 기존에 해오던 비전트립에서의 1차 진료와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른 사례들은 어떤 지기도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해 처음 아시아권 의료선교방향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박주영 국내선교위원회 담당 목사님의 '치료하는 주님'이란 설교를 시작으로, 북한 의료선교를 준비하시다가 북한으로 가는 길이 막혀, 대신 예멘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5년이 넘게 선교를 하신 외과 전문의이신 김경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멘이 내전으로 치달으면서 누구나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내전의 땅에서, 그와는 반대로 어떻게든 비자를 연장해서 계속 진료를 하려고 애썼던 그 열정에 감동했고,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었다고 고백하시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전의 땅에 남아있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편안한 국내에서 한 달에 한두번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희들로서는 내전의 땅, 예수의 이름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소명으로 헌신하셨던 노 선교사님의 자책

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예멘에 가시겠는가?"라는 질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선교사로 나가겠지만 아랍어권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언어가 통하는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선교사의 역량에 맞는 선교지를 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북한으로 의료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길, 그리고, 북한 의료선교의 길에 주님의 교회 의료선교부도 동참하는 꿈을 꾸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경국 선교사님에 이어서, 이문영 안수집사님께서 주님의 교회의 많은 지체가 함께 참여해서 일군, 해외 치과 선교의 모범 사례인 ○○치과의 진료 사업 20년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랍권이어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쫓기듯 귀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의해 쫓겨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하고 있고, ○○치과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 의사 및 관련 인력들이 그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는 소식과, 예년과 달리 감시와 박해가 심해져서 열매를 맺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음을 애기하시는데, 더 많은 지원과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타리카를 다녀오신 내과 김구엽 집사



님, 키르기스스탄을 다녀오신 가정의학과 김선화 집사님, 베트남을 다녀오신 산부인과 홍승호 집사님 차례로 간증과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돕는다고 도와도 늘 해외 사역 현장에서 부족하고, 국내에서 완 다른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어떨 때는 현지인들을 진료하는 것보다 동행하던 팀원들에게 의료인이 더 필요했던 이야기 등, 많은 반성거리와 감사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의 이름은 '아시아권 의료선교 방향 정립 세미나'였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 선교의 방향이 정립되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가 부족했고, 의미 있는 해외 의료선교 방향을 정하기엔 주님의 교회 의료선교부의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곳에서 의료선교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소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준명 집사 / 의료선교부

사역 보고 | 외국인유학생선교부

외국인유학생과의 어느 하루

첫눈 오는 날, 지난 한달 동안 여러 사람이 정성들여 준비한 세 번째 한국문화 체험 행사이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신설 부서(외국인유학생선교부)의 마지막 한국어/한국문화 사역행사가 펼쳐졌다. 북촌 백인제 가옥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인근 전통 직물놀이공방에서 한국인들의 손놀이 수준을 체험한 후 비빔밥전문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점심 식사 후 베트남그룹에서 그 동안 고생한 한국어강좌 멤버들에게 선물을 증정해주었는데, 그 작은 선물이 그렇게 크게 느껴



질 수가 없었다. 청와대 사랑채를 둘러 청와대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하나 더 찍고, 우리는 광장시장 맛집 투어로 달려갔다. 8조로 나누어 각 조별

로 나누어 한국 재래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맛보고, 마약김밥, 떡볶이, 빈대떡, 모듬전, 수수부꾸미 등 한국의 맛을 체험했고, 남산타워도 둘러서 세

번째 단체 사진을 찍었다.

지난 5월에 한양대 베트남반, 7월에 가천대 베트남반, 9월에 시작한 가천대 우즈베크반과 글로벌반, 이들 외국인유학생 27명과 행사 준비한 백제예술대 한류예술과 학생 8명 그리고 외국인유학생선교부 10명 총 45명의 서울 시티투어는 이렇게 끝났다. 함께 한 이들 유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길 기대하면서, 또 내년도 성경공부반 개설시 이들 중 몇 명이 그 주축이 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광중** 집사 / 외국인유학생선교부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 함글함글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④ 인터뷰

경제, 이 시대의 경제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그 네 번째 글은 박득훈 목사와의 인터뷰 기사와 왕진무 안수집사의 기고입니다. 이번 인터뷰나 발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다음 호에 수록하여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기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제 순서

1. 한국사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교회가 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창립 후 30년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2. 소통_교회의 언어는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용어와 일상어와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사회와 소통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3. 정치_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동행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봅니다.

4. 경제_이 시대의 경제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경제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5. 교육_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급변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6. 가치_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출몰하고 충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다양한 가치들을 바라보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7. 환경_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자연 보호와 개발의 문제, 원전과 에너지 문제, 생명권과 동물권 등,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자연에 대해 성찰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박득훈牧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 선교단체를 통해 예수를 깊이 만났고, 대학시절 내내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에 몰두했다. 예수의 제자를 양성해 세상으로 보내면 경제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되리라는 단순한 확신 때문이었다. 영국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담임전도사로 부름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해 국제장로교회(IP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고, 경제 문제에 대한 종합적 통찰력, 그리고 실천적 의지가 있는 제자만이 세상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제정의라는 주제로 기독교사회윤리를 전공해 영국 더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귀국하여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신학위원회에 발을 디디면서 '사회정의의 운동'과 '건강교회 운동'에 참여했고, 교회개혁 운동에 깊이 몸담게 되었다. 영국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목사, 성터교회 동역목사로 섬겼고, 언덕교회 전임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기독교사회윤리),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뉴스앤조이 편집인, 성서한국 이사, 새삼교회 전임목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평화누리 공동대표, 성서한국 사회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 <돈에서 해방된 교회: 교묘한 맘몬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2014), <터닝포인트 :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가 돌아설 길을 묻다>(2017, 공저) 등이 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1월 18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교회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함글함글 팀 몇 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실 정신학교에 있는 그 주님의교회 분들이시지요? (웃음) 민감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주시니 제가 오히려 고맙네요. 한국적 상황에서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경제문

제에 그리스도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무척 어렵거든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 인 차원에서의 경제행위, 또 경제구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편적이고 일반적 차원에서 무언가를 정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경제영역에선 더욱 그렇지요.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 혹은 관점에 따라 경제행위와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제학과 4학년 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 폴 새뮤얼슨의 <경제학>으로 원서강독을 했습니다. 그는 서론에서 똑같은 모양의 존재가 배경에 따라 새로운 보이고 영양(羚羊)으로도 보이는 그림을 소개합니다. 모든 과학에 주관성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과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이 경제행위와 구조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경제행위를 개인과 공동체를 고루 잘 먹여 살리기 위한 생산 활동으로 이해하지만, 막스 베버가 정의한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한 사람들은 부의 축적 자체를 정당한 경제행위라고 이해합니다. 그에 따라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죠. 어렵지요? 곧 성탄절이 다가옵시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를 자신의 사회적 위치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부나 세리 같은 평범한 이들을 제자로 삼고, 당시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데서도 드러납니다. 저는 그 동안 그런 입장에서 경제를 성찰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행위란 “사회의 전 구성원이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산 분배 소비하는 사회적 활동”입

니다. 생존을 영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열망을 구현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는 성부·성자·성령께서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며 활동하시듯, 인간과 집단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 필요한 물적 자원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사회적 활동이 바로 경제행위이지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잘 돌보고 가꾸라는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구조란, “다양한 경제활동의 사회적 분업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각 개인과 모든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질서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사회적 분업”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소위 ‘자유시장’이란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분업이 무정부적이란 데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대공황, 한국의 1997년 IMF 사태,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서 심각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국을 겨우 통과하고 나면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중간계층이 가난과 불안으로 내몰립니다. 또한 시장은 자연 파괴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환경을 오염해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시장은 환영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적 분업을 위해 현재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대안적 경제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기존의 경제구조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살 수 있는가만 고민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정의로운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새로운 경제제도를 마련해주십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거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경제, 물질, 권면, 제자의 도리 등과 관련하여 이해합니다. 성서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 사회의 구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있는 물질, 또는 경제 구조에 대한 여러 권면들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실천의 덕목이나 기준이 아니라 추상적인 선행의 당위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네, 언급하신 말씀들로만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 경제 또는 경제구조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다 넓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와 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행위와 구조가 예수님의 마음에 더 들지 가능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무소유 요구와 경고에 접하면서 당혹해합니다. 부를 축적해도 집착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출구를 찾습니다. 제 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위 “깨끗한 부자”가 가능하다는 그의 확신에 정조준해 충격을 가하심으로써,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도록 그를 흔드신 겁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것 즉 구제, 기도, 금식, 십일조 등에 열심을 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부가 절대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제가 정의롭게 운영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적재산권을 절대화하는 로마제국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그런 불의한 경제체제 하에서 부를 축적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는 하나님 축복이라는 단순논리에

간혀 있는 이유는 그가 신앙을 빙자해 사실상 하나님보다 부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소유라는 충격요법을 쓰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자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컨대 부자 삭개오에겐 그러지 않으셨지요. 그는 자기 부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사회적 신분상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부의 대한 탐욕을 쉽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와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부가 어떻게 축적되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묵도하고 있듯이 자본주의경제는 공정한 상생구조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불공평한 승자독식의 세계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까지 회자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다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부를 허락한 그 구조가 바로 훨씬 많은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가난으로 몰아갑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부를 단순히 자신의 신앙적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늘의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시며 요청하실 겁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구제를 좀 더 많이 하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자기 부만 정당화될 수 있다면 기꺼이 응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에게 필요한 답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이 부에 대한 탐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만이 경제구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당시 경제 구조에 대한 인식은 ‘희년’이나 ‘면제년’, ‘십일조’ 등에서 편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이 기독교의 전통 속에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경제구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동체적 문화창조의 사명을 주시면서 경제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크고 강한 나라가 형성되어 온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의와 공도”(=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창 18:18-19).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공도”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인간적 삶을 상실하고 종노릇을 하거나, 착취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질 때 정의로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해 복잡해질수록 가난은 결국 제도의 문제이지, 자선과 구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겪는 온갖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고 모세를 통해 해방시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율법을 통해 새로운 경제제도를 마련해주십니다. 거기에 바로 휴경년, 안식년, 면제년, 희년 등의 중요한 제도가 포함됩니다. 가난 문제는 구제와 자선을 넘어 정의로운 경제제도의 실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경제구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까지 ‘엘 샤다이(전능한 하나님)’로 나타났으나, 이제부터는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출 6:3). 하나님을 ‘엘 샤다이’로 아는 건 말하자면 저 박득훈을 그냥 사람으로 아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은 영어로 표현된 히브리어 자음 “YHWH”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여호와, 야웨, 야훼”라고 번역합니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는데다 누구도 “YHWH”가 나타나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씨씨엠에 종종 등장하는 ‘퀴리오스’입니다. <십계명> 제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바로 그 앞 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밝힙니다(출 20:2).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하는 신이 바로 “YHWH”입니다. 즉 바로의 억압체제 하에서 노예살이로 신음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해방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구제와 자선은 열심히 하려 하지만 기존의 경제제도와 구조를 흔드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정의 혹은 불의를 떠나서 그런 사고 자체를 신앙적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존 질서와 제도에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존 질서와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면, 이미 가진 부의 정당성, 사회적 지위의 정당성까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자 청년도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 곁을 떠난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장하준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에서
“경제는 너무 중요해서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경제제도를 공부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공동체를 세우며,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 정의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어떤 상이
점이 있는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가난한 사람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정신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치경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정치경제 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경우 교회와 세상나라에 이중적으로 속해있는 신앙공동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치경제 구조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정치경제 공동체이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순수하게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경제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을 뒤집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6~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당연히 구약입니다. 이 말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의(구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공동체 안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체제와 회당체제에 과감하게 저항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제국에 속한 이방인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정면 충돌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대신 이곳저곳에 작은 신앙공동체를 일종의 진지로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제국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가부장제도와 노예제도에 맞서 교회 내에서 만이라도 참된 평등을 구현하고자 씨름했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길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하는 것처럼, 주인도 노예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NIV에선 “in the same way”)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이나 노예나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히 혁명적 사상입니다. 바울은 로마제국의 껍데기만 인정할 뿐, 그 내용은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그 껍데기마저도 완전히 소멸될 것을 기대한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울의 가르침을 존중한다는 건, 우리 시대 속에서 실현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가 무엇인지를 창의적으로 고민하며 그 실현을 위해 가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인이 한국 경제 구조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내 삶의 위치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회적 약자결으로 최대한 가까이 이동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현실을 볼 수 있고 그들을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출 2:23-25:3:7; 6:5).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자신이 도와야 할 타자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그냥 한 몸이 되어버리셨습니다(마 25:31-46). 내가 먼저 성공해서 그들을 도와야지, 하는 건 예수님께선 낯선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악마가 권했던 바를 수용했어야 마땅합니다. 경제력, 신비한 카리스마, 정치적 권력

을 지니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건 기존의 불의한 질서를 수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바는 자신이 속한 신앙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뜻에 걸맞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불의한 세상과 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도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비 콕스는 <신이 된 시장>에서,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제도가 아니라 유사종교와 같다고 말합니다. 종교와 같이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장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순절은 이웃사랑의 정신을 전파하지만, 시장신의 오순절은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소비주의 정신을 확산시킵니다. 오늘날 시장신의 성령은 영상입니다.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영상은 0.3초 만에 대뇌피질로 전달되는 데 논리적 메시지나 합리적 메시지를 다루는 기관을 우회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회로에 직접 연결된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경자국은 사실상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무섭지요?

일단 이렇게 소비주의 정신에 포획되면 돈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돈은 일반적 물질과는 달리 보편적 등가물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돈의 양이 무한대로 증가하면 교환 가능한 소비대상을 무한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소비주의 정신과 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충만한 신앙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무장해 맞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제도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경제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케

임브리지대학 경제학 교수인 장하준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에서 “경제는 너무 중요해서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전문 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 관련 신문 논설이나 전문가 칼럼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기독교인이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경제학적 주장이 과연 과학적 논리와 실증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소위 ‘낙수효과’란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낙수효과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 경제학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강조하는 소위 ‘자유시장’은 사실상 인간사회에 아주 낯선 것입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잘 밝혀준 것과 같이 자유시장은 엄청난 정치적 노력에 의해 1840~70년에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존재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강조된 것이 오늘날에도 경제규범처럼 회자되는 탈규제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무역 등등입니다.

그런 자유시장이 허락하는 자유란 타자의 자의적인 강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보장할 뿐입니다. 회년이 강조하는 자유 즉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자기 땅으로 돌아가 스스로 경작해서 자신과 가정의 삶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자유, 즉 적극적 자유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즉 자유시장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규제하는 사회적 시장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정교한 논리의 말씀이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웃음)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 함줄함울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④ 특별기고

경제, 이 시대의 경제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돈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는가

글쓴이 왕진무 안수집사는 성경적 재정교육을 전담하는 사역체인 한국청지기가카데미 이사이며, 많은 교회에서 소그룹 재정교육 리더로 섬겨오고 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다.
이 시대의 경제구조는
부에 대한 무한경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경제원리와
달라 맘모니즘에 빠지게 한다.

이 시대의 경제구조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부를 추구하는 무한경쟁의 구조다. 이는 필요(Needs)를 넘어서 끝없는 탐욕(Wants)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경제원리와 배치되어 크리스천들을 맘모니즘에 빠지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경적 경제생활을 막고 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경제구조의 힘을 이겨내려면 성경적 재정원칙을 살피고 실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
크리스천으로서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이를 드리

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성도들의 약 30% 내지 35%만이 십일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십일조를 드린 뒤에 남은 10의 9 즉, 90%는 이제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돈을 쓰고 불리는 일에 분주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강단으로부터 돈과 물질(Money & Possessions)에 대한 말씀을 별로 듣지 못하고 있다. 교회에서 십일조를 강조하면 불편해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을까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재정원칙(Biblical financial principles)’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할 책임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금년 들어 한국인의 가계부채(household debt)는 1,500조 원에 육박하여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갚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가처분소득(disposal income) 대비 약 160%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이며, IMF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이것이 한국에 닥칠 또 다른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하고 있다.

2
두 가지 예화를 들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교계에서 존경을 받는 어느 목사님이 주일설교를 마치자 한 장년부부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였다. “목사님, 우리는 망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주일성수 잘 하고 십일조도 잘 내고 주일마다 봉사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러실까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숨 돌리고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이야기인 즉, 작은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은 가까운 친구가 용자에 필요하다 하여 가볍게 모 보증기금에 보증을 섰으나 갑자기 그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 기관은 보증인의 소유 주택에 가압류를 넣어 곧 경매에 부칠 상황이었다. 목사님은 “아니, 성경에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 몰랐나요?” 하니, 그들은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을 가

르쳐 주셨나요?”라고 항의하였다. 그런 반박을 듣고 할 말이 없어진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 조지아주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하워드 데이튼의 얘기다. 그가 맡은 초등반 아이들은 늘 결석이 잦고, 수시로 사고를 치는 것을 참다 못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가정방문을 하였다가 의외의 원인을 발견했다. 하나 같이 돈 문제로 부부간에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혼 가정으로 편모와 사는 아이들이 다수였다. 수입으로는 주택담보 대출금 이자도 카드 빚도 갚지 못하고, 또 다시 카드대출로 돌려막기에 급급해 하는 실정이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벌써 30여 년 전부터 발생한 일인데 오늘날 한국의 가정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인 부부의 이혼 사유도 2012년부터는 성격 차이가 아닌 돈 문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예화1은 빚 보증 문제다. 보증을 서면 대신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율이 제1금융권에서는 약 50%, 제2금융권에서는 약 75%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성경은 특히 잠언에서 보증서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고 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잠 22:26-27). 예화2는 과소비와 탐욕으로 인하여 부채의 늪에 빠진 경우다. TV를 비롯한 온갖 미디어가 쏟아내는 광고의 유혹에 버티는 재간은 무너지고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 빠져 빚덩이에 눌리게 된다. 빚을 지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믿는 이걸 아니건 ‘더 빨리, 더 많이, 더 큰 것’을 얻으려고 분주하기 짝이 없다. 강남의 아파트 사재기 열풍, 복권 판매대 앞의 긴 줄, 금융 피라미드 사기 등의 함정에 빠진다.

3
돈과 재물에 관하여 성경은 말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55:8). 그럼에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돈에 넘어진 최악의 사례가 허다하다.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행5:1-11), 요단 지역을 택하였다가 화를 당한 롯의 이야기도 그렇다. 크리스천의 물질관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써 모든 돈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주님은 그 소유권을 절대로 인간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으며, 우리는 그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기(고전 4:2)일 뿐임을 아는 데 있다. 세상에 속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경제의 주체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재정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먼저 배우고 바로 실천하여야만 한다. 성경은 무려 2,350여 구절에서 돈과 재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 16개가 돈에 관한 것이다. 왜 그럴까? 첫째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부를 결정하며(마 25:21) 둘째로,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지 아니면 돈을 놓을지를 놓고 늘 갈등하기 때문(마 6:24) 주님은 우리가 돈과 재물을 지혜롭게 다루기를 원하시므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재정복음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참된 재정적 자유함(true financial freedom)을 누리고,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Great Commission)을 수행하는 일꾼이 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disciple)가 되려면 성경의 재정원칙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자기훈련(self discipline)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을 다루는데 정직을 행하고,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며, 일과 직업관 및 생활방식이 바뀌며, 영원을 사모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왕진무 안수집사 / 5-19 교구

해외선교 소식 | 헝가리

헝가리 사역 소식을 전합니다

2018년 한 해도 담임목사님과 당회, 해외선교위원장님과 헝가리 팀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중보기도 팀과 주님의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의 기도와 선교후원으로 헝가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과 감사드리며 사역내용과 소식을 사진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 에큐메니칼 선교

1) 헝가리 개혁신교단(RCH: Reformed Church in Hungary)과 대한예수교장



로교회(PCK: Presbyterian Church of Korea)와의 선교협력과 총회참석(9월)이 있었습니다.

2) 양 교단 지역교회와 신학교간의 선교협력(한-훈 포럼)

헝가리개혁신교단 지역교회와 신학교(데브레첸신학교-장신대, 호남신대)와 학생-교수-학술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선교와 교회의 미래를 위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1월).

2. 복음 선교

1) 짚시선교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인이나 계층이 아닌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3) 노숙자 사역

짚시들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에게도 헝가리개혁신교회 디아코니아센터(Diakonia Center)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재활을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새삼 느낍니다. 그분들을 위해 성경말씀을 전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헝가리개혁신교회에 속한 교회와의



협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동토의 땅, 헝가리에까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바라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을 선교사인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중보기도 드립니다. 정채화 목사, 정혜영 사모

사역 소식 | 미시오데이

2018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이웃사랑 음악회



(사)섬김과 나눔 주최 미시오데이 찬양대 주관으로 생명사랑 이웃사랑 음악회가 11월 18일(수) 오후 7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1부에 (사)섬김과 나눔 회장 양동훈 장로의 기도와 황바울 목사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사)섬김과나눔이 사회복지와 공익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을 상연했고, 2부 순서로 손정아 권사의 사회로 미시오데이 선교 찬양대 공연이 진행되었다. 전체 합창과 여성 찬양과 Young 미시오데이 중창과 첼로 독주와 해금과 장구 국악 협주 등 은혜로운 찬양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사)섬김과 나눔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복지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함으로 지역사회의 공동 번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미시오데이 선교 찬양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섬기고자 찬양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이다. 미시오 찬양대는 지금까지 45회 공연을 가졌으며, 교도소, 개척교회, 군부대, 장애인 복지재단, 보훈병원 위문, 북한어린이 결핵제로 운동, 등 선교 찬양활동을 해왔다. 김하수 담임목사는 공연을 마친 후 인사 말씀을 통해 성탄과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함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섬김과 나눔과 미시오데이 선교찬양대 사역 위에 풍성한 생명사랑과 이웃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소망했다. 함줄함울

사역 보고 | 통일선교부

통일선교바자회 수익금 지원내역 보고

2018년 10월 20일 열렸던 통일선교 바자회의 수익금은 모두 22,845,380원이었으며, 이중 판매수익이 12,845,380원, 현금 10,000,000원이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외부에 지원되었는데, 지원 원칙은, 해외탈북동포 구출 지원금을 우선했고, 우리들학교(사), 한민족밀알공동체 등 기존 협력기관을 지원했으며, 그 외에 김포 우리두리하나돌봄센터(이무열 목사), 평택 하나비전교회(송신복 목사), 길동무교회(정순희 목사), 한정협(사)(석사현 장로) 등을 지원했습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와 참여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일선교부

지 원 처	지원금액	비 고
탈북동포 구출지원	1250만원	통일소망선교회 국민(통일소망선교회) 538801-01-385895
우리들학교 (탈북민청소년대안학교)	300만원	윤동주 교장 국민((사)우리들학교) 041301-04-263944
한민족밀알공동체 (탈북민 농촌공동체)	230만원	이동인 목사 농협(한민족밀알공동체) 301-0094-6007-21
길동무교회 (탈북민목회자교회)	100만원	정순희 목사 우리(길동무교회) 1006-001-398836
평택 하나비전교회 (탈북민목회자교회 공동체)	100만원	송신복 목사 농협(하나비전교회) 351-0988-7999-73
김포 우리두리하나돌봄센터 (탈북민교회 공동체)	100만원	이무열 목사 국민(마중물) 648001-04-065435
한정협(사)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 협의회)	200만원	석사현 장로 국민((사)한정협) 008601-04-049059
총 계	2,280만원	

목회칼럼

쉐마(Shema) 주님의교회!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신앙교육을 말한다.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하는 유산이다.

쉐마(Shema)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쉐마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약과 그 중에서도 신명기를 알아야 한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생활을 마감하는 고별설교이며 마지막 부탁이라 할 수 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시니(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의 첫 글자인 ‘들으라(שמע, Shema, 쉐마, Hear)’란 ‘쉐마’가 히브리어 단어이다. 이를 풀어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이 된다. 즉 핵심은 ‘들으라’(쉐마)라는 것인데 이 말속에는 단순히 ‘듣는다(Hear)’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순종하다(obey)’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¹⁾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보자면 신명기 6장 4절 이후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신앙교육 그 자체이다. 그런데 신명기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기 위한 회당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기였기도 하였으며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와 9절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할지니라”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의 장소가 자연스럽게 가정이 되었을 것이고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대상은 자녀가 되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구약시대 원래의 쉐마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듣고 순종하게 하여 자손 대대로 다음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특별한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선대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자신들은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이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쉐마를 잘 실천할 수 있게 했고 이것이 자신 유대인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현실 가운데 더욱 돋보이는 문화적 유산과 민족대대로 이어지는 경건한 삶, 신앙으로 존재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쉐마는 공관복음서를 통해서도 인용되어 언급되고 있다. (막 12:29-30, 마 22:37, 눅 10:26-27).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하는 것인가? 그것은 쉐마가 구약시대의 이 세상을 위한 명령이었을지라도 이 명령은 구약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18-20의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쉐마는 그때만, 아니 유대인만의 명령, 유산이 아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명령이고 유산이다. 명령은



지켜야 하고 유산은 전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쉐마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하는 명령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하는 유산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가족,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1)Birnbaum Philip, Encyclopedia of Jewish Concepts, New York, NY : Hebrew Publishing Company, 1991, 554-555.
2)Hirsch Samon Raphael, Deuteronomy, the Pentateuch, Vol.V, Gateshead : Judaica Press Ltd, 1989e, 88.

홍성욱 목사

겨자씨 소개 | 8-2 주님과 같이

가을보다 아름다운 싱글들의 모임



480미터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의 가을은 유난히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가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40세 전후의 싱글로 구성된 우리 겨자씨는 비록 소수이지만 그 나뭇잎은 풍성합니다. 주일 오후,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나와 동행하신 그리고 동행하실 하나님’ 이야기로 꽃에 꽃을 피우다 보면, 해는 어느새 뉘엿뉘엿 저물어 석양으로 붉게 물들이기 일쑤입니다. 모든 겨자씨가 방학을 하는 이번 겨

울도, 우리는 삶의 이야기 꽃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꽃을 계속해서 피워나가려고 합니다.. 매 주일 오후 1시, 5층 모임실 첫 번째 방에서 겨자씨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드리면서, 함줄함줄 하실 싱글들이 계시다면 오셔서 따뜻한 차 한잔과 이야기로 몸과 마음을 녹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문의는 이지형 전도사(010-4817-0109)에게 해주세요. **이지형 전도사 / 젊은이교구**

사역소식 | 군경선교부

3사단(백골부대) 신병세례식



군경선교부에서는 11월 17일 3사단(토) 신병교육대 십자군교회(군목 권민성 목사)에서 신병들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주관했다.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부대 내 자리 잡은 십자군교회는 매년 22번 세례식을 통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 이날 세례식 주님의교회 후원으로 2중대 108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주님의교회 군경선교부는 특별한 선물(성경

책+라이트펜)을 세례기념품으로 제공하여 훈련병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다. 권민성 3사단 군종목사는 “민간교회의 지원없는 신교대 교회 사역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매해 신교대 세례식을 지원해주시는 주님의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했다. 군경선교부에서는 2018년 6번의 신병세례식을 하여 1000여명 신병을 주님의 자녀로 삼는 귀한 기회를 가졌다. **함줄함줄**

아기나들이



정태오 아기

2018년 8월 29일생

1.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2.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3.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아빠 정희찬 집사 / 엄마 강선영 집사 2016년 11월 18일 3부 예배



박하일 아기

2018년 8월 3일생

1.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센 심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2.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3.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 박주영 목사 / 엄마 최수민 사모, 2018년 11월 25일 2부 예배

공동체 소식 | 안수집사회

2018년도 안수집사총회 열려

2018년도 안수집사회 연말정기총회가 11월 18일 김화수 담임목사와 은퇴안수집사, 피택안수집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19년도 주님의교회 목회의 방향에 대한 담임목사의 비전선포와 더불어 세부적인 실행방법까지 제시하여 중간사역자로서 안수집사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 인식과 더불어 결단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예년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동안 사역에 무관심한 안수집사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정한 제1회 선한 청지기상이 금년도 처음으로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안수집사를 대상으로 4명의 후보자를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이재현 안수집사)에서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되었다. 수상자의 소감발표로 참여한 많은 안수집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신형섭 안수집사는 적십자병원과 한일병원과 춘천호스피스에서 12년 이상을 호스피스 헌신봉사하였고, 이형구 은퇴안수집사는 은퇴 후에도 계속 주방부에서 10여 년을 봉사하였

으며 독거노인 죽배달도 10년 이상 봉사를 하였다. 주차안내부 최재규 은퇴안수집사는 교회 등록 후 20여 년간 주차안내봉사로 헌신하였다. 김윤섭 은퇴안수집사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찾아 목수인 특기를 살려서 비새는 농어촌교회를 자비량으로 며칠씩 봉사하기를 10여 년 이상 하고 있으며 주차안내부에서도 20년 이상 봉사를 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안수집사회 이름으로 표창장과 아울러 소정의 상품도 지급되었다. 그의 피택안수집사와 은퇴안수집사의 상견례가 있었고 장수현 목사와 김성구 서기장로의 이임인사도 소개되었다. 최근들어 은퇴안수집사와의 공적인 모임이 없어서 이번 기회로 은퇴안수집사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안수집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임사로 신영백 회장은 당부했다. 차기 회장으로 이명기 안수집사(현 2남선교회장)와 감사로는 노대홍 안수집사와 정준호 안수집사가 추천되었다.

신영백 안수집사

공동체 소식 | 사랑나무

사랑나무 음악회에 없는 것과 있는 것



지난 12월 2일, 사랑나무의 '에이레네' 음악회가 열렸다. 사랑나무는 우리 교회 발달장애인 부서이며 에이레네 음악회는 그들의 연말 음악회다. 2016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제3회를 맞았다. 작년만 해도 사랑나무 친구들의 순서는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교사들의 찬조출연을 제외한 모든 순서가 그들의 것이었다. 관객들은 올해가 가장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입을 모았다.

사랑나무 친구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핸드벨 연주>를 하는 동안 관객들은 찬양을 따라 불렀다. 다음 순서는 <패션쇼>. 선글라스, 모자, 머플러로 화려하게 멋을 낸 친구들이 객석 가운데 레드 카펫을 개성을 뽐내며 걸어 내려가자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 즐거운 웃음으로 화답하였다. 성동현 군이 트럼펫으로 <Amazing Grace>를, 임지현 양이 피아노로 <You Raise Me Up>을 연주했다. 전공자들만큼 빼어난 실력이 아니었지만 그 감동이 컸고,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도 있었다. 다음으로 이영진 군이 자신의 애창곡을 노래하고, 원주연 군이 방탄소년단 등 인기 아이돌의 댄스를 열정적으로 선보이자 사랑나무실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어서 교사들이 무대에 올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공연자와 관객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커다란 원을 만들고, 다 함께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며 서로 맞잡은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음악이 흔한 시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훌륭한 연주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사랑나무 친구들의 공연은 실력으로 보자면 감히 전문가들과 견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음악에는 독특한 힘이 있었다. 우리를 감격시키고,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 어쩌면 그것은 교회가, 가장 작은 이들을 중심에 세우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설 때, 그들을 품에 안고 계신 주님께 가장 가까이 서 있기 때문은 아닐지.

이재인 전도사 / 사랑나무

알립니다

1. 성탄예배 안내

- ▶ 성탄가족예배 : 12/23(주일) 4부 예배시
 - ▶ 성탄예배 : 12/25(화) 1부(오전8:00), 2부(오전10:00)
 - ▶ 성탄찬양예배 : 12/25(화) 3부(낮12:30)
- 내용 : 칸타타 "사랑의 왕" - Bob krogstad
주관 : 호산나찬양대, 주오오케스트라

2. 유아세례 신청 및 교육

대상 : 교회등록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 11/25~12/16(주일) 안내데스크(1층)
교육 : 12/16, 23(주일) 2주간
유아세례식 : 성탄절(12/25) 2부 예배시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010.4322.9917)

3. 정신학원선교부 기도, 사랑어머니 모집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정승아 권사(010.2416.4538)

4. 청소년분과 멘토 모집 (재능기부: 특강, 1:1만남, 소그룹 만남 등)

교회와 정신학원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5. 1부, 2부 예배 안내봉사자 모집

문의 : 박남현 안수집사(010.8910.1386)

6. 한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모집

외국인유학선교부에서 한국어강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고광중 안수집사(010.3323.2337)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나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